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한윤정* · 문현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83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은 주관적 행복감 및 일-가정 양립 이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가정 양립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이점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이점, 일-가정 양립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규명하고,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가족친화적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 양립

논문 투고일 : 2026. 07. 26.

최종심사일 : 2026. 08. 23.

게재확정일 : 2026. 09. 18.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Corresponding author : Mun, Hyun Je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 State 54896, Korea. E-Mail: aduu77@naver.com

I. 서론

행복은 인간이 전 생애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Lyubomirsky, King, & Diener, 2005)이다. Diener(1984)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행복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긍정심리학이 도래되면서 21세기에 행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권석만, 2008). 최근에는 웰빙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자살률 및 이혼율 증가 등 현대사회 중년기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년기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연구(박미경·정혜정·황미진, 2022)가 확대되고 있다.

중년기 남성은 부모세대, 자녀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한 다른 세대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길문·정남운·윤재호, 2020).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자녀의 청소년기라는 가족발달단계와 자신의 중년기라는 생애주기 상의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면서(김길문 외, 2020)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는 아버지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연령은 주로 35-59세에 속하는 중년기에 해당하며,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동하면서 이들의 발달적·환경적 변화는 부모의 양육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소수연·김승윤·유준호·지수연, 2014). 중년기의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에 따라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변화된 관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박수정, 1992). 최근 아버지의 주 양육자 역할의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서은주, 2012)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향숙, 2024)에서도 이 시기의 아버지가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역할변화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선길, 2025)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은, 2022). 그러나 아버지와 청소년기 자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유경진·김응자, 2019) 등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자녀 간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경우 심리적 변화가 심한 우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성수, 2001).

주관적 행복감은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윤혜영, 2010) 주요 변인으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관련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관계적 요인이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는데(정계숙·최은실, 2012), 특히 중년기 남성에게 가족관계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강보민·이기영, 2020).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의 독립과 부모 역할의 변화로 인해 부부관계와 가족의사소통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유일영, 2005) 아버지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기 남성의 행복감은 가족관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은 여성의 경력 단절,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속에서 등장한 개념(김지민, 2018)으로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중년기 남성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년기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직업적 책임과 함께 배우자 및 부모로서의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족 내 역할 부담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성수, 2001).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기 남성은 직업적 책임과 동시에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역할과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므로 직장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양립하는가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행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전이모델(spillover model)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이모델은 한 영역에서 경험한 정서와 자원, 역할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일과 가정의 상호 영향성을 강조한다(이진숙·최원석, 2011).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가정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과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간의 긍정적·부정적 전이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은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가정 양립 역시 가족관계와 행복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남성이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관계성을 나타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가족관계와 행복감, 일-가정 양립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각각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선미 외, 2023). 특히 일-가정 양립을 다룬 연구는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점이나 긍정적 전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김지민·유성경,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 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경험이 일과 가정의 역할수행과정을 거쳐 아버지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진과 가족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하여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Spanier와 Lewis(1980)는 결혼만족도를 개인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윤지연·강선경, 2018 재인용).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에 폭넓은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abatelli & Bartle-Haring, 2003). 높은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경·윤갑정,

2012; 홍성례, 2020; 홍성례, 2021). 중년기에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라 부부관계가 변화하면서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족관계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일-가정 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관계는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이예숙·김영희, 2016).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이진숙·최원석, 2011), 김은경과 심준섭(2016)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향상,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2. 가족의사소통

가족의사소통은 가족관계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서구 문화권에 비해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문화권의 경우 가족 의사소통의 형태가 개인의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서정희, 2017).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부부의 상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정유수·이영순, 2018). 선행연구에서 중년기 남성의 의사소통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김연숙, 2015; 장정수, 2020; 정유수·이영순, 2018)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박미경·정혜정·황미진, 2022)에서도 부부의사소통과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의사소통과 일-가정 양립의 관계는 전이모델로써 설명되고 있는데 서종수(2016)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자원과 긍정적 경험이 직장 영역으로 긍정적으로 전이된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 내 긴장과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와 역할 갈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옥·정서린, 2016). 즉,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은 일-가정 양립 이점을 높이고 갈등을 완화하지만 가족 내 갈등과 긴장은 부정적 전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사소통 또한 주관적 행복감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발전해 왔다(김지민, 2018). 일과 가정의 다중역할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갈등 관점과 향상 관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점은 일과 가정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는 것으로 개인이 역할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영역에 자원이 투입되면 다른 영역에 결핍이 생겨 두 영역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Edwards & Rothbard, 2000). 즉,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의 역할 간 압력으로 서로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것(Greenhaus & Beutell, 1985)이며 직장과 가정의 역할 압력이 상호 양립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임희정, 2020). 두 번째 관점은 일과 가정을 상호향상 관계로 보는 것으로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은 심리적, 물리적 만족과 기쁨을 얻고 개인이 지닌 자원이 확장된다는 것을 가정한다(Greenhaus & Powell, 2006). 즉 일-가정 양립 이점은 직장에서의 역할이 상호 양립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일과 가정에서 다중역할 수행이 개인 성장의 원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윤미·강현아·오세현, 2022; 하문선,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일-가정 양립은 갈등뿐 아니라 이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Rice, Frone 그리고 McFarlin(1992)은 일 만족과 가족 만족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이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증가하였고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수경·정혜정·이선미, 2023).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 이점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 갈등은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 외, 2023).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영, 2022).

4. 주관적 행복감

행복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추구하는 가치(Lyubomirsky, King, & Diener, 2005)이자 개인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행복은 초기에는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개인이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상태(Seligman, 2002)로 행복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Compton(2005)은 주관적 행복감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였다(홍성례, 2020). 즉, 주관적 행복감은 객관적인 생활조건이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행복의 수준보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둔다.

행복은 개인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Vaillant(2002)는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72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행복의 핵심 요인으로 인간관계를 제시하였으며, Ryff(1989)와 Seligman(2011) 또한 긍정적 인간관계를 행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강조하였다. 이는 행복이 가족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16차 조사는 2023년에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 출생한 아동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점의 자료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055가구 중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면서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응답한 991가구를 1차 선정하였다. 이후 주요 변수(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주관적 행복감)에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15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37명의 아버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46-50세가 5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1-55세(24.0%), 41세-45세(18.6%), 56세 이상(3.8%), 40세 이하(0.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년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700만원 이상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1만원-500만원, 501만원-600만원, 400만원 이하, 601만원-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지 기간은 17년 이상 20년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7년 미만은 31.8%, 20년 이상은 27.4%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37)

변인	구분	N	%
연령대	40세 이하	7	.8
	41세-45세	156	18.6
	46세-50세	441	52.7
	51세-55세	201	24.0
	56세 이상	32	3.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5	24.5
	2~3년제 대학 졸업	170	20.3
	4년제 대학교 졸업	347	41.5
	대학원 졸업	115	13.7
가구소득	400만원 이하	129	15.4
	401만원-500만원	170	20.3
	501만원-600만원	155	18.5
	601만원-700만원	118	14.1
	700만원 이상	265	31.7
결혼 유지 기간	17년 미만	266	31.8
	17-20년 미만	342	40.9
	20년 이상	229	27.4

2. 연구도구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귀하는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가족의사소통

가족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한 FACES IV Package에 포함된 가족 의사소통 척도(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를 김영식 등(2012)이 한국표본을 대상으로 번역하고 표준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상호 경청, 솔직한 감정표현 등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Marshall과 Barnett(1993)이 제안한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척도를 번역한 것이 활용되었다. 이 척도는 일-가족 양립 이점 7문항과 일-양육 이점 4문항, 일-가족 양립 갈등 9문항과 일-양육 양립 갈등 6문항으로 4개 하위 영역과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일-가정 양립 이점

에 해당하는 문항은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다.’와 같이 일-가족 이점 7문항과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와 같이 일-양육 이점 4문항인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갈등에 해당하는 문항은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와 같이 일-가족 갈등 9문항과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와 같이 일-양육 갈등 6문항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4) 주관적 행복감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를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1점)’부터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PROCESS Macro 버전 4.0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모형은 Model

4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 매개변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종속변수는 행복감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5,000개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는 가족의사소통($r=.53, p<.001$), 일 - 가정 양립 이점($r=.39, p<.001$), 주관적 행복감($r=.5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일 - 가정 양립 갈등($r=-.21,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의사소통은 일 - 가정 양립 이점($r=.40, p<.001$), 주관적 행복감($r=.5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일 - 가정 양립 갈등($r=-.27,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일 - 가정 양립 이점은 주관적 행복감($r=.4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 - 가정 양립 갈등($r=-.34,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일 - 가정 양립 갈등은 주관적 행복감($r=-.3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변수들의 상관관계

(N=837)

변수	결혼만족도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이점	일-가정 양립 갈등	주관적 행복감
결혼만족도	1				
가족의사소통	.53***	1			
일-가정 양립 이점	.39***	.40***	1		
일-가정 양립 갈등	-.21***	-.27***	-.34***	1	
주관적 행복감	.52***	.50***	.47***	-.31***	1

*** $p<.001$

2.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연령, 최종학력, 월가구소득, 결혼 유지기간을 투입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에 최종학력($\beta=.12$, $p<.01$)과 월가구소득($\beta=.10$,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였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beta=.33$, $p<.001$)와 가족의사소통($\beta=.32$, $p<.001$) 모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로 통제변수만 투입한 결과보다 31%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점과 갈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1%로 7% 증가하였으며 결혼만족도($\beta=.27$, $p<.001$), 가족의사소통($\beta=.24$, $p<.001$), 일-가정 양립의 이점($\beta=.23$, $p<.001$)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beta=-.11$, $p<.001$)은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로써 오차항의 자기 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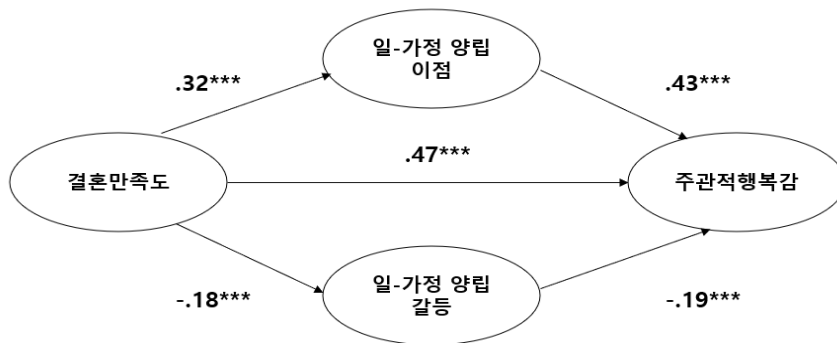
변수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연령	-.01	-.05	-.01	-.03	-.00	-.01
최종학력	.11	.12**	.03	.03	.03	.03
월가구소득	.00	.10**	.00	.05	.00	.03
결혼유지기간	.00	.05	.00	.01	-.00	-.02
결혼만족도			.42	.33***	.34	.27***
가족의사소통			.51	.32***	.38	.24***
일-가정 양립 이점					.35	.23***
일-가정 양립 갈등					-.16	-.11***
F	6.55***		71.43***		69.51***	
R ²	.03		.34		.41	
ΔR^2	.31				.07	
Durbin-Watson			1.88			

** $p<.01$, *** $p<.001$

3. 매개효과 검증

1)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결혼만족도는 일-가정 양립 이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32, p<.001$), 일-가정 양립 이점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3, p<.001$). 반면에 결혼만족도는 일-가정 양립 갈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8, p<.001$), 일-가정 양립 갈등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 p<.001$). 또한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47, p<.001$). 이는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그림 1]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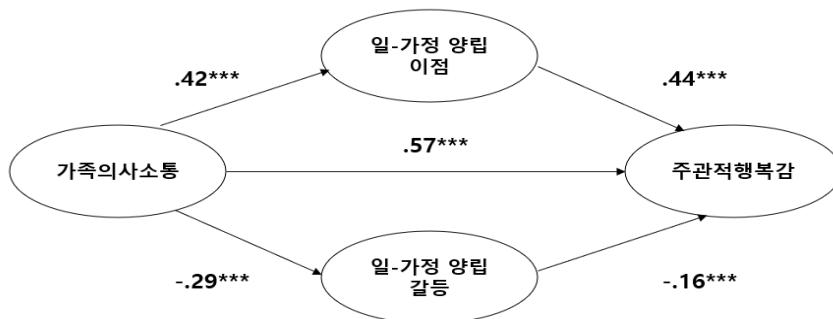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검증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Bootstrap 검증
(N=837)

구분	B	β	SE/BootSE	t	p	LLCI	ULCI
총효과	.64	.52	.04	17.20	<.001	.57	.72
직접효과	.47	.38	.04	12.45	<.001	.40	.55
간접효과	.17	.14	.02	-	-	.13	.22
일-가정 양립 이점	.14	.11	.03	-	-	.09	.19
일-가정 양립 갈등	.04	.03	.01	-	-	.02	.06

2)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은 일-가정 양립 이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42, p<.001$), 일-가정 양립 이점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44, p<.001$). 반면에 가족의사소통은 일-가정 양립 갈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29, p<.001$), 일-가정 양립 갈등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16, p<.001$). 또한 가족의사소통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57, p<.001$). 이는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이 가족의사소통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사소통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그림 2]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Bootstrap 검증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매개효과-Bootstrap 검증 (N=837)

구분	B	β	SE/BootSE	t	p	LLCI	ULCI
총효과	.80	.50	.05	16.64	<.001	.70	.89
직접효과	.57	.36	.05	11.44	<.001	.47	.66
간접효과	total	.23	.15	.03	-	.17	.30
	일-가정 양립 이점	.18	.12	.03	-	.12	.25
	일-가정 양립 갈등	.05	.03	.02	-	.02	.0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1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일-가정 양립 이점과 정적 상관을,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 수준이 높다는 연구(박희경·윤갑정, 2012; 홍성례, 2020)와 아버지에게 부부관계가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이예숙·김영희, 2016)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정유수·이영순, 2018; 박미경·정혜정·황미진, 2022)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경험하는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으로 설명되는 가족관계의 질이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박수정, 1992) 안정적인 부부관계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가족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 그리고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이진숙·최원석, 2011)와 부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경미, 2018)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김은경·심준섭, 2016; 이진숙·최원석, 2011)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높은 일-가정 양립 이점 및 낮은 갈등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이점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Rice, Frone & McFarlin, 1992)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과 행복감의 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주수정·정혜정·이선미, 2023)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 또는 중년기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서 가족생활(김민희, 2018; 김희정·최한나·김진희, 2023; 최빛나·김정민, 2019)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을 밝힌 선행연구(이선미·정혜정·주수정, 2023)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데 더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과 같은 가족관계 요인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은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와 개방적이고 원활한 가족의사소통이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의 긍정

적 경험과 관련되고, 이러한 특성이 높은 주관적 행복감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가족 내 긍정적 관계 경험이 직장과 가정 영역 간의 긍정적 전이를 촉진한다는 연구(서중수, 2016)와 가족 내 긴장과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간 부정적 전이와 역할 갈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장윤옥·정서린, 2016)를 뒷받침하며 부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가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경미, 2018)와도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와 가족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부모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족발달 단계와 생애주기상 전환기에 해당하므로(김길문·정남운·윤재호, 2020) 가족 내 갈등과 부정적 정서가 일 영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족 내 긍정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이점을 높일 수 있는 예방적·강점 중심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 일-가정 양립,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주로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을 함께 고려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가족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족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이점은 높고 갈등은 낮았으며, 이는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교육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결 전략, 자녀와의 개방적 대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 시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강점 관점에 기반한 가족 및 부부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점과 관련된 긍정적 자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상담 및 가족지원 과정에서 갈등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가족 내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 부부의 긍정적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개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

관계, 일-가정 양립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족센터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상담, 가족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6차 자료를 활용한 횡단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관계, 일-가정 양립, 주관적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 보고식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의 평가를 함께 활용하거나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 모두 조사에 응답한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아버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맞벌이 여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조와 생활환경을 포함하고, 근로시간 및 맞벌이 여부를 고려한 상태에서 변수 간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보민·이기영(2020). 중년 1인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9(3), 5-38.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경미(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행복 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문·정남운·윤재호(2020). 한국 중년남성의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27-548.
- 김민희(2018). 중년기 남성의 직무만족, 부부만족, 여가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길(2025). 청소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공감,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2), 229-247.
- 김성수(2001).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2015).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식·선우성·김병수·박훈기·옥선화·차동혁(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 김은경·심준섭(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 김지민(2018).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지지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일-가정 향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유성경(2022).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지지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일-가정 향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2), 143-167.
- 김태은(202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최한나·김진희(2023). 중년 남성의 행복에 관련된 변인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4(3), 61-85.
- 박미경·정혜정·황미진(202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체면민감성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과가족치료**, 30(1), 37-67.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복지감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윤갑정(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243-261.
- 서은주(2012).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고찰. **부모교육연구**, 9(2), 35-51.
- 서정희(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종수(2016). 일-가족 상호작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 향상과 가족-일 향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2), 277-299.
- 소수연·김승운·유준호·지수연(2014). 초기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0(4), 425-453.
- 유경진·김용자(201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16(2), 53-65.
- 유일영(2005).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기적 갈등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17-22.
- 윤지연·강선경(2018).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알코올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2), 431-444.
- 윤향숙(2024). 청소년 자녀를 둔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에 따른 심리적 경험 연구와 목회상담을 위한 실천적 함의. **목회와상담**, 42, 119-158.
- 윤혜영(2010). 중년기 부모의 성인 자녀 관계 및 체면 민감성이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정혜정·주수경(2023).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123-139.
- 이에숙·김영희(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행복에 관련된 변인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4), 25-45.
- 이진숙·최원석(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 임희정(2020).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갈등과 경력몰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옥·정서린(2016).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부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직업 관련 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2), 65-83.
- 장정수(2020). 중년남성의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 만족도,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최은실(2012).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 정유수·이영순(2018). 중년남성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공감능력과 부부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5(2), 327-341.
- 정윤미·강현아·오세현(2022).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아동과 권리**, 26(2), 213-233.
- 주수경·정혜정·이선미(2023). 초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557-571.
- 최빛나·김정민(2019).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73-88.
- 하문선(2018).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529-552.

- 한은영(2022).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행복의 관계: 부부친밀감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전 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례(2020). 기혼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문사회** 21, 11(1), 1659-1674.
- 홍성례(2021). 기혼 남녀의 주관적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문사회** 21, 12(5), 731-746.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Wadsworth.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178-199.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Rice, R. W., Frone, M. R., & McFarlin, D. B. (1992). Work-nonwork conflict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55-16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159-169.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NY: Free Press.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Boston, MA: Little, Brown.

Abstract

Marital Satisfaction, Family Communica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Fathers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Han, Yun Jung* · Mun, Hyun 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on subjective happiness among fathers of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and conflict. Using data from the 16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837 fathers of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PROCESS Macro (Model 4).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and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whereas the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work - 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In addition,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whereas work - 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Seco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communication,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and work - 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among fathers of adolescents. Third,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and conflict each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on subjective happin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focusing on fathers of adolescents, a population that has received relatively limited research attention, and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 family reconciliation benefit and conflict in the association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communication with subjective happiness. Th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family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family-friendly policies for fathers of adolescents.

Keywords: fathers of adolescents, marital satisfaction, family communication, subjective happiness, work - family reconciliation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